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모형: 성경해석을 중심으로

강상우(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논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일차적 텍스트다. 이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 모형은 성경에 충실하여야함을 의미한다. 만약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하고자 한다면, 논리실증주의 방법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성경에 충실한 사회복지실천해야만 한다. 2) 성경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1) 하나님(GOD)은 복지실천의 기원이다. (2) 사랑하라(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 전도하라(위임명령: The Great Commission), 청지기로 살라(문화명령: The Cultural Mandate)는 실천의 명령이다. (3) 말씀선포(케뤼그마: κηρυγμα: kerygma)는 실천의 매체가 된다. (4) 성도(ἅγιος: hagios)와 교회(ἐκκλησια: ekklesia) 그리고 그 밖의 연합체 등은 실천의 주체가 되며, (5) 실천의 방법으로는 디다케(διδαχη: didache),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diakonia),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 koinonia)가 있다. (6) 실천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εικων του θεου: eikon tou theou)과 지역사회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κοσμος: kosmos)는 복지실천의 현장(setting)이 된다. (7)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β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를 만드는 것이다. 3)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성경적 세계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다케

I. 서론

교회는 “사회복지의 어머니”(Mother of Social Work)라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Johnson, 1941: 404; Garland, 2001: 18 인용). 특히 서양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기독교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869년에 영국 런던에 최초의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조직하여 교회들 간의 자선사업을 조정하였으며, 1884년에는 런던에 토인비 홀(Toynbee Hall)이라는 인보관(Settlement House Movement)을 세워서 가난한 지역민을 위한 교육훈련을 공급하였고, 지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생활정보를 교환하며 보건복지 관련 입법의 제정에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877년 처음으로 버펄로(Buffalo)에 자선조직협회가 조직되었으며, 1899년에는 애덤스(Jane Addams)가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라는 인보관을 설립하였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인보관운동과 자선조직협회는 교회와 지역사회, 복음 선교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서로 만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특히 인보관 사업의 경우에는 오늘날 지역사회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서양의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독교가 사회복지발전에 사상적으로나 실천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김기원, 2005: 59-60).

한국개신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은 초기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선교정책을 확고히 수립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의 사회봉사활동은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한국인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심각한 욕구가 보건과 교육이라고 판단하여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택한 것이다. 심령의 구원을 위해 선교의 한 방편으로 육신의 치료에 힘썼고, 무지를 계몽하여 새로운 세계를 밝혀 줌으로써 선교의 결실을 맺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선교 초기에 있어 한국정부의 선교금지 정책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도 효과적이었다(이만열: 1981: 12; 최성균, 1996: 183-184 참조).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1880년대부터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미국에서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당시 한국사회의 보건, 교육 분야의 열악(劣惡)함을 참작하여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비록 복음전파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한국 백성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사업과 무지를 계몽하기 위해 학교를 설

립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양곤, 2001: 292).

1. 연구목적

기독교(교회)사회복지실천모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류 학문의 경향이 과학주의로 표현되는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양적 방법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라는 가치개입적 입장에서 주류학문의 연구경향에 역행하면서까지 ‘사회복지실천모형’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청 때문이다(박종삼, 2003: 12; 장준근, 2004: 44; 강기정, 2004: 44; 김성철 엮음, 2003: 229 참조). 박창우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개발의 필요성을 자신의 박사 학위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기존의 교회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태에 관한 연구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사회복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문헌연구인 경우 성서적 근거나 역사를 바탕으로 교회의 복지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고, 조사연구인 경우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이에 대한 의식조사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 따라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와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천모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박창우, 2007: 6-7).

기존 연구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였고 또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과학적 논리-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의 연구가 아닌 지협(地峽)적이거나 단편적(斷片的)인 연구에 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을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론으로 대변되는 논리-실증주의적 연구에 선행(先行)하여 성경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모형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¹⁾

1) 과학적 논리-실증주의적 차원의 방법과 신학적 차원의 방법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실증적 방

2.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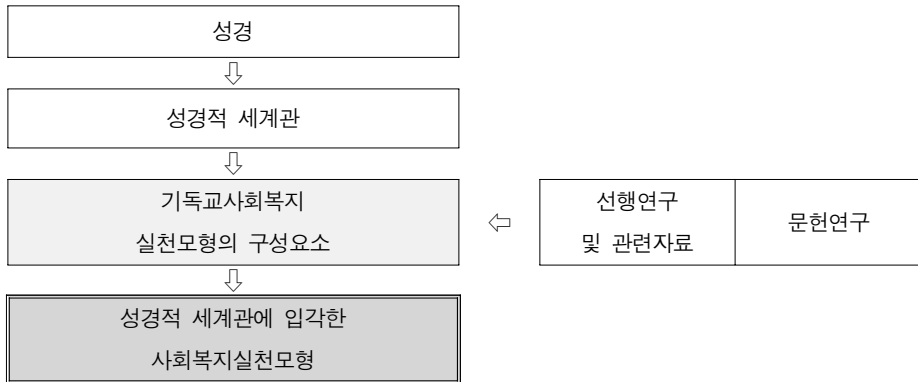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실천모형의 구성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실천모형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박창우(2007)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성요소로 목표, 주체, 대상(객체), 방법, 재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참조하여 성경이 말하는 사회복지실천 근원(기원), 근거(명령), 매체, 주체, 객체(대상·현장), 방법 등에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a) 실천 근원(기원): 사회복지실천의 원천(근원)은 무엇인가?
- b) 실천 근거(명령):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명령은 무엇인가?
- c) 실천 매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매체(실천명령과 주체의 연결점)는 무엇인가?
- d) 실천 주체: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는 누구인가?
- e) 실천 방법: 사회복지실천의 방법(方法)에는 무엇이 있는가?
- f) 실천 객체: 사회복지실천의 대상(client)은 누구이며, 현장(舞臺; setting)은 어디인가?
- g) 실천 목표: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는 무엇인가?

법의 실천모형개발의 경우, a) 목표, b) 주체, c) 대상, d) 방법, e) 자원 등을 서베이(survey)를 통해 조사대상자(연구자들과 사회복지실천 현장 전문가 등)에게 묻지만, 신학적 차원의 방법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위의 요소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실증적 방법을 사용한, 즉 면접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의 목적을 무엇인지 질문한다고 하자.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전도라고 대답하면 전도가 복지실천의 목적이 되고, 실천목적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대답하면 사회적 책임이 실천목적이 된다.

그러나 신학적 차원의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결정된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한다면 과학적 차원의 방법에 앞서 성경이 사회복지실천모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성경(Text)이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모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버거(P. Berger)의 ‘근사구조’(近似構造, plausibility structure 또는 ‘타당성의 구조’로 번역됨)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사구조는 “한 사회의 세계관이고, 그 사회의 중심이라 볼 수 있다. 세계관은 한 사회 혹은 사회의 한 부분(여기서는 학문공동체)이 그것이 채택할 경우에는 자기 세계관이 참된 것임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Sire, 2007: 164).

(2) 연구 모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그림1]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 개발 연구모형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들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이 지녀야할 함의(含意)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차 텍스트(text)인 성경(The Bible)²⁾과 문헌연구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수집 후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와 함의

1. 관련 선행연구

기독교교회복지실천 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 SILOAM 모형: 먼저 영락사회복지재단 연구팀에 의해 제시된 교회 사회복지실천

2) “말씀의 객관성과 확실성은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여전하다.”(Luther, 1967: 192. 32296번 발췌; Mohler, 1998: 87 재인용); 김한옥(2001: 163)은 “기독교 사회봉사의 뿌리는 무엇보다도 성서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

모형인 SILOAM이다(영락사회복지재단 연구팀, 2005: 218-251). SILOAM 모형은 다른 모형들보다 성경 전체에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궁극적으로 재활, 자립하여 복지사회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복음 전파의 사도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증인이 되어야 한다.”(Apostle)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 모형이 어딘가 모르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전도의 수단이라는 오해 할 소지가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실천할 때, 물론 선교(전도)를 위해서도 하지만(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부정할 수 없는 이상(理想)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반드시 전도만을 위해(전도의 수단으로만) 사회복지실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기독교복지 모형: 강기정은 텔파이기법을 이용하여 창조-타락-구속(Christian World-view)을 통한 “기독교 복지개념 모형”을 개발하였다(강기정, 2004: 43-62). 이 모형은 기독교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창조’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의 목적을, ‘타락’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그리고 ‘구속’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 목표와 실천방법을 도출했다.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기독교(개혁주의)세계관의 ‘기본 틀’(framework)에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 기독교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 타락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구속에 있어서는 실천 목표와 방법에 대해 추상적인 이해를 두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실천의 구성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3) 통전(統全)적 선교모형: 통전적 선교모형(서정운, 1992: 41; 박종삼, 2000: 21-22)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선교모형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사회복지실천마인드를 지니고 있음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실 기독교사회복지 교과서나 문헌들도 통전적 선교모형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모형은 내용면에서 사회복지(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 즉,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도 포함하여야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통전적 선교모형’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형은 너무나 선교 중심적 모형이어서 극단적으로 ‘선교=기독교사회복지’(선

교학=기독교사회복지학)³⁾라고 이해될 수 있고 이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을 선교학의 한 실천영역으로 이해할 오해의 소지를 지닐 수 있다.

(4) 교회사회봉사의 사회복지적 실천모형 Model A. B. C: 박종삼(2002: 30)은 Model A, B, C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Model A는 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계적,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Model B는 교회건물을 중심으로 교회자원을 동원하여 자원 봉사적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주는 모형을, 반면 Model C는 교회가 그 자체로 사회봉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만 자원봉사요원으로 교인을 훈련시켜 지역사회 내 여러 복지시설이나 기관 또는 요보호가정에 파송하여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모형이다. Model A, B, C는 교회의 크기, 위치, 교회복지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배합이나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 모형은 복지실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형태로 복지를 실천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교회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포괄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5) 교회규모에 따른 유형: 이종우(2000: 255-258)는 교회 규모에 따라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즉 교회를 재적인원에 따라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누어 각 교회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구조를 기술한 것이다. 이 모형은 박창우(2007: 24)가 지적한 것처럼 전국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각의 규모에 따라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천모형이라면 제시해야 할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의 목표, 주체, 대상, 방법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6) 교회 임무의 사회사업적 시각을 위한 실천모형: Escobar(2002: 165-166)는 교회가

3) Stott(1989: 35-36)는 “선교란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함유하는 단어가 아니다. ‘교회는 선교다’는 말은 좋은 것 같으나 실상 과장이다. 교회는 봉사의 단체일 뿐 아니라, 예배의 단체이며, 예배와 봉사가 서로 소속적이긴 하지만 혼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한다.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a) 역사, (b) 문화, (c) 사회적 차원에서 지리적 정치적 경제를 초월하는 교회의 사회사업 개입의 기초가 됨을 설명해 준다. 이 모형은 교회가 하나님과 인류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기반인 점을 지적한 것이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역사적 차원, 문화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사업 개입의 기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점은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 차원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실천경로를 통해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7) 교회사회복지활동 실천모형: 박창우(2007)는 생태체계이론을 근거로 하여 교회사회복지활동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현황 및 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실천모형을 a) 적극-대형 모형, b) 적극-중형 모형, c) 적극-소형 모형, d) 소극-중대형 모형, e) 소극-소형 모형으로 구분한다. 이 연구의 경우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복지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의 실천 형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나, 다른 논리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실천의 일차적 텍스트인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관련 선행연구의 함의

위의 선행연구 모형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은 사회복지실천모형개발에 있어 어떤 면에 유의해야만 하는지에 도움을 준다. 먼저 박종삼의 모형은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 중심적이어야 함을, 강기정의 모형은 성경적 세계관에 충실해야 함을 보여준다. SILOAM 모형은 모형개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성경 자구(字句)적 해석이라든가,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 성경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이 되어야함을 지적해 준다하겠다. 통전적 선교모형은 실천의 내용면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은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SS+SA), 즉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도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실천모형의 목적이 단순한 전도나 선교

의 수단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책임까지도 포함되어야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먼저 교회 중심적 실천모형: 교회 중심적이라는 말은 교회의 기능과 본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교회의 기능으로 (a) 전도(evangelism: 마28: 19; 행1: 8), (b) 건덕(健德: edification: 엡4:12), (c) 예배(Worship: 히10: 25), (d) 사회적 관심(약1: 27; 요일3: 17-18)을 말한다. 에릭슨은 구체적으로 건덕(健德)을 세우는 방법으로 교제(fellowship)와 교육이 있다고 한다(Erickson, 1995: 61-91). 호켈다이크(J. C. Hoekendijk)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a) 진리의 선포(kerygma)와 (b) 성도의 친교(koinonia), 그리고 (c) 사랑의 봉사(diakonia) 등의 세 가지 기능을 지적한다(Hoekendijk, 1997: 22-29). 교회의 기능과 본질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모형이 교회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a) 진리의 선포(kerygma), (b) 친교(koinonia), (c) 교육(didache), 그리고 (d) 봉사(diakonia)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성경적 토대에 충실한 실천모형: 이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성경을 단지 어떤 이론이나 모형을 위한 증빙자료(proof-texting)로만 사용하거나, 문자주의(biblicism)에 입각한 성경해석을 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박종삼은 기존의 연구들이 성경적 토대에 성실하지 못하고 너무 자구(字句)중심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다음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기독교 사회복지를 위한 성경적 근거로 관련된 성구구절을 나열하는데 그침으로 성경구절들이 현대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며,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이 막연히 ‘성경말씀’은 어떤 것도 유용하다는 마구잡이식 나열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경적 근거를 막연하게 만들었다(박종삼, 2001: 26-27).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은 성경이 말하는 사회복지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인간관이나, 가치관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 또한 배울 수 있다. 성경적 토대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이념과 사상에 충실한 실천모형이 되어야함을 말한다.

(3) 사회적 책임(SS+SA)을 포함하는 모형: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은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즉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최근 20년 사이 한국복음주의권의 교회는 로잔언약에서 제기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통전적인 관계정립에 힘입고 교회성장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고조, 그리고 한국사회전반에 걸친 복지영역에 대한 관심의 확대 등이 중첩되면서, 과거의 정치참여중심의 사회적 책임행위보다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수행해 왔던 사회봉사중심의 사회참여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김동춘, 2002: 100)고 한다. 유의웅(2003: 81)에 의하면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존재다. 수레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듯이,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라는 두 바퀴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사이더(Ronald Sider)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기간 중 이 둘을 똑 같이 취급했다고 지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암시는 없다. 그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복음을 증거 하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했다”(Cottrell, 1994: 59).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 모형은 이 두 원칙인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원칙(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나 이는 원칙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유에서처럼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 개인(client)의 신앙이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의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지향하되, 때로는 전도나 선교만의 수단이 아닌 순수하게 사회봉사차원의 복지실천 또한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III.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 개발

1. 실천모형의 구성요소

점진적 계시의 말씀인 신구약성경의 유기적 통일성 속에서 성경전체를 통하여 통일된 하나님의 복지 마인드를 만나게 된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모형의 구성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는가.

(1) 실천 기원: 삼위일체 하나님(Trinity)

사회복지실천의 원천(근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회복지실천은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Wells(2008: 242)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이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성원(2002)은 인간은 본질상 자발적 자선이나 자의적 이웃사랑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왜 사회복지의 실천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자발적으로 인간이 자선을 수행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의 내면성이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자선이나 자의적 이웃사랑은 어려운 것이다(김성원, 2002: 63-64).

먼저 사회복지실천의 기원이 하나님이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섬김이고 친교이고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사와 친교와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형성한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사회적으로 전이될 경우 민주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실현하시며 만드시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는 섬김과 봉사와 친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임희모, 2001: 265; 시146: 7-9 참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복지(福祉)의 절정인 에덴이라는 복지(福地)에 거하도록 하셨다(이재서, 2000: 247).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犯罪)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을 가나안 복지, 즉 젓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며, 그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 복지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Shelp & Sudenland, 1981: 20; 오성춘, 1997: 71 인용). 위의 위로의 사역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복지의 기원이 되심을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위이신 성부하나님의 경우다. 창조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15: 26). 치유사역(healing ministry)은 매우 광의적으로 육체적인 치료와 통전적인 전인 치유와 환경 치유를 포함하는 의미다(김중환, 2003: 535). 성부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 2위이신 성자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히들 “봉사의 원형”(prototype)이시고, 봉사 혹은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원되었다고 한다(이삼열 위음, 1992: 14; 김동춘, 2002: 123-124 참조). 김성원(2002: 92)도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민망(憫憫)히 여기시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서 영어로는 filled with tenderness 혹은, moved with compassion으로 번역되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 인간복지를 향한 마음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존재양식이었다”고 지적한다. 3위이신 성령하나님도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카운슬러(counsellor: 保惠師)가 되어주신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와 욕구(problems & needs)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Trinity)은 바로 진정한 사회복지의 출발점이요, 기원이 되심을 알 수 있다.

(2) 실천 명령

실천 근거(명령):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명령은 무엇인가? 신구약성경을 통해 볼 때 성경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나오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대(大)명

령과 “증거(證據)하라”는 전도의 명령,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키고 다스리라”는 문화(文化)명령이다. 이들 명령들에서 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① 제1명령: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 37-40; 막12: 29-31 참조)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요 3: 16). 그의 사랑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사랑이라는 단어인 아가페(agape)는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가페적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반 죽게 된 행인은 다른 행인들에게 결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분깃을 타서 허랑방탕하게 지낸 탕자(蕩子)도 형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과 허랑방탕하게 지낸 탕자 이 둘 모두를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한 대상으로 뽑으시고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눅10: 25-37, 15: 11-32). 홍정길(1990: 132)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바이블(The Bible)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이블(Bible)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이란 없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사역은 ‘아가페 사랑’이란 토대 위에서 즉, “사랑하라”는 대명령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적 정의와 함께 사회복지의 기본정신이다(박성호, 2005: 42-43). 존 스토틀은 사회봉사의 순수성에 관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가서 섬기게 되어 있는 것(we love, we go, we service)이다.’ 이 일을 하는데 숨은 동기란 없어야 한다.”(김성철 엮음, 2003: 249 재인용)고 말한다.

② 제2명령: 대위임 명령(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權勢)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吩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 18-20).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도하라는 대위임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해 주셨고(요 14: 26), 삼위의 세 번째 위격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요15: 26). 전도의 창시자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즉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한편, 선교 및 포교 활동을 중시하는 종교계의 특성상 사회복지활동의 동기에서 선교의 동기를 배제하기 힘들다. 즉, 처음에는 종교적 의무에 의해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선교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종교가 절대 신념의 체계이다 보니, 종교적 의무감이 동기가 된 사회복지 행위에 있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작용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상균 외, 2001: 98).

사회복지실천의 동기에서 선교의 동기를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극단적 선교의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지양(止揚)해야겠지만, 실천의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선교를 위하여 사회복지실천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동기를 가지고 사회복지실천한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통전적 선교관은 선교관 영혼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선교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트를 중심으로 수정 확대된 선교관은 선교를 전도와 사회책임의 수행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박종삼, 2000: 155). 즉, 스토트는 이전의 복음주의자들의 편협한 견해를 수정하면서 선교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지상명령에만 근거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예수의 사역 전체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교는 전도뿐 아니라 사회

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tott, 1989). “전도하라”는 명령은 이처럼 선교의 동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③ 제3명령: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창2: 15)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전도와는 상관없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는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실천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 28)고 명령하셨고 “또한 다스리고 지키라”(창2: 15)고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어떤 동산을 ‘다스리고’(work) ‘지키는’(take care of it)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다.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위임은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문화명령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복지의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 만약 개인이나 국가가 재물에 대해 철저한 주인의식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지기 의식의 진정한 의미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신15: 8-9)(최무열, 1999: 40).

하나님은 문화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청지기의 삶인 오이코노미아(oikonomia)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사실 경제학과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경제학(economics: oikonomia)이라는 단어는 ‘집의 재산 관리인(執事)’을 의미하는 희랍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생태학(ecology)이라는 단어는 집(환경)을 연구한다는 희랍어 오이코스(oikos)와 로기아(logia)라는 단어들로부터 유래된 도덕철학으로서 청지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라든가, 생태학 등에 청지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지실천에 있어서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화명령은 청지기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함으로 인간과 관계된 피조계에 대한 복지실천을 요구한다. 환경문제에 대

해서 즉,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라고 하신다. 주택문제와 토지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또한 가정의 청지기로서, 지역 사회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것은 우리를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슨 명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하는가. 먼저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인간은 바로 복지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전도하라, 청지기로 살라는 명령 또한 그리스도인을 바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3) 실천 매체: 말씀선포(Kerygma)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매체(실천명령과 실천주체와의 연결점)는 무엇인가? 말씀선포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인 성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연합체, 기독교 NGOs 등들과 사회복지실천의 객체인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등을 연결한다. 예수님은 유무형의 말씀선포(직접적인 말씀선포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간접적 말씀선포)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이셨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비유로 말씀해주셨고, 때로는 무형의 말씀선포인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몸소 보이셨다. 세족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언어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회봉사사상을 성경에서 이끌어 내서 설교와 교육으로 교인들에게 내면화시키고 행동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구춘서, 2005: 170).

잘못된 말씀선포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 당시 현대 산업사회에 무지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는데 이는 삶과 역사에 무지한 목회자들이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목회자들은 여성흡연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는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주식조작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도덕성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돈을 현금으로 내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Niebuhr, 1980: 101; 이상원, 2006: 17 인용)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강단(pulpit)을 통한 말씀선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능력(dynamis)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처럼 말씀선포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해석을 통한 말씀선포는 긍정적으로 복지마인드의 능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반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말씀선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지마인드를 후퇴하는 쪽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교회는 올바른 말씀해석을 통한 올바른 말씀선포(케뤼그마: kerygma)를 통해 교회구성원인 성도들을 사회복지 정신으로 교육시키고, 무장시키고 또 그들이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성도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야 한다.

(4) 실천 주제: 교회와 성도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는 누구인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주체는 교회(ekklesia: ekklesia)와 하나님의 백성인 개개인의 성도들(ἅγιος: hagios)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특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직설법과 명령법(Stott, 1994: 180)을 사용하신다. 직설법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후 명령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 다시 말해 믿음의 징표로서의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복지실천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必然)이다.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직(discipleship)과 시민직(Citizenship)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세속사회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복지기구(NGOs) 등에서 시민직으로서 복지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 측면에서 교회를 “그 나라의 대항자”라고 부른다(Snyder, 2000: 13). 성도와

교회가 복지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제시한 시험(test)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두 번째 시험은 사회적 시험, 즉 사랑의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시험이다. 그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으며(Stott, 1994), 이는 결과적으로 성도는 복지실천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성도와 교회가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범위 면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연합,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회이지만 약간의 의미가 다른 교회들의 연합인 노회와 총회 그리고 다른 어떤 변형된 형태의 사회복지의 실천, 그들이 만든 법인(法人)이나 기독교 NGOs 등 또한 복지실천의 주체됨을 의미한다.

(5) 실천 방법

사회복지실천의 방법(方法)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다. 성경은 복지실천의 방법으로 섬김과 교제 그리고 교육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다.

① 실천방법의 제1원리: 섬김(διακονία: diakonia)

내가 증거(證據)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고후8: 3-4; 막10: 45 참조)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은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섬김은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과 접촉하는 방법은 바로 섬김이었다. 예수님도 바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과 진정한 접촉점을 찾을 수 있었다.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접착점은 바로 섬김이었다. 섬김의 삶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등과 만나야 한다. 교회 집사의 어원이 봉사자(Diakonos)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② 실천방법의 제2원리: 교제(*κοινωνία*: *koinonia*)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몬1: 5-6; 행2: 42 참조).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라는 용어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코이노니아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tott, 2002: 145).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행2: 42) 교제의 삶을 살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우며 교제의 삶을 살았다. 코이노니아는 신약에서 어근 *koinon*(*κοινων*)을 연구해보면 그 단어로부터 형성되거나 형성된 단어들 중 상당히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실제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를 의미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코이노니아와 관련 용어들은 실제적이고 종종 많은 희생이 드는 나눔을 나타내는데, 이는 보통 ‘교제’로 통용되는 무미건조(無味乾燥)한 형식적인 ‘함께 함’(togetherness)과는 거리가 먼 개념임을 말해준다(Wright, 1991: 118).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부자들에게 “아낌없이 구제하라”(κοινωνικους)고 한다. 바울이 자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모금’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고린도인들의 관대한 헌금이 보여 준 ‘교제의 너그러움’(liberality of the fellowship, 코이노니아)에 대해 말하는 것(고후9: 13)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첫 번째 방법인 섬김(*diakonia*, 디아코니아)이 어원적으로 비물질적인 특징이 강한 사회봉사를 의미한다면, 또 다른 방법인 교제(*koinonia*, 코이노니아)는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성격이 강한 실천방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은 섬김과 더불어 교제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구현되어 진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 물질적인 교제(코이노니아)의 자세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사회복지실천을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실천방법의 제3원리: 가르침(διδάχνη)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원리는 물질적은 의미의 교제(코이노니아)와 비물질적인 의미의 섬김(코이노니아)과 더불어 가르침(didache, 디다케)이 함께 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예수님은 복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시며(diakonia),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needs)로 하는 것(koinonia)을 채워 주셨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didache). 산상수훈을 통해 진정으로 가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질(mammon, 맘몬)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물질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大)위임명령을 주실 때에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은 ‘가르침’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질을 관리하는 법, 결혼생활을 위한 방법을 그리고 자녀와 부모간의 역할 등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서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오늘날 사회문제(여성의 지위, 동거, 가난, 동성애, 이혼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되어야 한다. 사실 과거에 교회(教會)를 교회(教誨)라고 인식한 것도 교회의 ‘가르침’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교육’사업에 전념한 것도 바로 가르침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실천 객체: 하나님 형상인 인간과 세상

실천 객체, 즉 사회복지실천의 대상(client)은 누구이며, 현장(舞臺; setting)은 어디인가? 사회복지실천의 객체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실천현장 즉 실천 무대인 세상이다.

① 대상(client):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 28)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란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분리하며, 고립시키고 추상화시킨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 또한 통전적이어야 하며, 인간의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과 결핍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김은수, 2001: 181).

플랜트(R. Plant)에 의하면 개인존중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a) 첫째는 비스텍(C. Biestek)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학적 주장이며, (b) 둘째로 개인존중의 원리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c) 셋째는 개인존중의 원리는 증명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사업가 자신의 신념의 문제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Plant, 2002: 28).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개인존중의 근거는 플랜드의 분류에 따르자면 첫 번째인 신학적 주장에 해당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학적 주장에 근거하여 개인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주장한다. 기독교복지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Imago Dei: εικων του Θεου)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해는 인간존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정종훈, 2002: 40).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존재의 가치로서의 인간을 의미하고, 왜 인간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낙인(烙印: στυγμα: stigma)을 방지해 주는 근거가 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객체(클라이언트)에게 오는 낙인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즉, 홈리스(homeless),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빈민들, 불법 이민자들, 비행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⁴⁾들을 사회적 집단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신분과 계층, 연령, 학력 등과 무관하게 이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인지시킴(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몸과 영혼의 단일체로서의 인간이다. 이에 대해 이승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흙(아다마: אָדָמָה)으로부터 만드시고 그 의미를 살려 그를 아담(אָדָם)이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인간의 몸은 흙으로부터 나왔고,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인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4)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붙는 낙인효과에 대해 갠스(Herbert J. Gan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행동적 정의에 의한 최하층계급에는 홈리스, 가난뱅이, 거지, 알코올과 약물중독, 그리고 거리의 범죄자들이 들어간다. 이 용어는 유연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빈민들, 불법 이민자들, 비행청소년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물론 행동적 정의의 유연성은, 빈곤층의 실제행동과 상관없이 빈곤층이라는 낙인을 찍는 데에 이용되는 꼬리표 같은 용어가 되기 쉽다”(Gans, 1995: 2; Bauman, 2010: 131 인용)

직접적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그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될 수 있는(즉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있는 ‘영혼과 몸이 단일체로 있는 사람’(psycho-somatic unity)인 것이다(이승구, 2003: 15).

인간이 바로 영혼과 몸의 단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대상인 인간이 영(靈)과 더불어 육(肉)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물질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접근도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인적 치유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복지실천의 대상(client)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가정이나 또래집단)이나 확대된 공동체(지역사회 등) 또한 복지실천의 대상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복지실천의 영역이 클라이언트 개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가족이나, 집단, 지역사회 등에서처럼 보다 넓은 차원의 영역에까지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인, 2006: 147-148; 박창용, 2002: 53-54 참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이해할 때 잘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격상할 위험(인간의 우상화)이 있고, 인간을 죄인으로만 이해할 때 인간은 주체성을 상실한 수단(인간의 수단화)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자 죄인으로서의 인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루터(Martin Luther)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의인이자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데, 이에 대한 책임의 의무 또한 동시에 주어져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인 인간을 자율적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대우하여야함을 의미한다.

② 실천 현장(setting): 세상(κοσμος; kosmos)

성경에서 세상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창조세계’(창1: 1)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지구’(롬1: 8)를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죄로 오염된 세계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강인한, 2003: 191; Mouw, 2008: 128 참조). 리텔보스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을 “그리스도 밖에서 죄에 의해 지배되는, 구원받지 못한 삶의 총체”라고 정의한다(Ridderbos, 1975: 91).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The Christian is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고 말한다(Van Til, 1972: 15).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그러나 아직’(Already-but not yet)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세상을 복지실천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교제 그리고 가르침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지실천의 현장이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복지실천의 현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복지하면 지역적(local)인 것만을 생각한다. 이웃과 지역사회 같은 것만을 복지실천의 장으로 생각한다. 세계가 복지실천의 현장이라는 말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광역사회복지실천 영역을 말해준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은 그 영역 면에서 세계적(global)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적(local) 즉 글로컬(global+local)한 복지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의 환경문제, 핵문제, 전쟁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여야 하며, 빈곤의 문제의 경우 지역의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빈곤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지역, 한 나라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동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적 디아코니아는 국가적 사회복지가 갖는 국가공리주의적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적 복지영역으로부터 배제된 비합법적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처한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디아코니아적 실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외국인노동자나 국제적 빈곤상황이나, 인권문제 등은 국가적 사회복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정치적이고, ‘예언자적(豫言者的) 디아코니아’(Prophetische Diakonia)나 ‘전지구적(全地球的) 디아코니아’(Globale Diakonia)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김동춘, 2002: 330; 손인웅, 2001: 33 참조)

(7) 실천 목표: 하나님 나라

실천 목표 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하는가.

인간은 도래한 왕국과 성취될 왕국, 구속의 지금과 그때,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의 둘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이다(강춘근, 2004: 75)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미-아직’ 사이의 긴장관계에 있는 성경적인 현실주의자임을 말한다. 하나님은 아직 약속하신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세상의 모든 억압과 부패를 그리고 모든 폭력을 내쫓지는 않았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난리(亂離)가 만연해 있다. 아직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되지 않았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기심, 잔인함,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 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개선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다.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빛과 소금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최악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만이 이 세상에 만연된 악을 뿌리 뽑고 영원한 공의를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Stott, 2002: 496-497).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재서, 2000: 255-256 참조)라고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지상천국의 건설을 지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봉호(1990: 48)는 “기독교가 지상천국의 건설을 지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의 궁극적 의미는 역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근원에 있으며, 천국의 도래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이상사회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룩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 수 없고,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일부다”(손봉호, 1990: 49) 한다. 손봉호 교수의 말처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바로 사회복지를 통해 지상천국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룩하려고 노

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설적(逆說的) 삶”의 한 부분인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은 삶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 삶의 모습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며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 참여한다.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의 구성요소들

앞 내용을 참조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1>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의 구성요소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의 구성요소

복지실천 기원	-- 삼위일체 하나님(Trinity)	
복지실천 명령	-- The Great Commandment 사랑하라. -- The Great Commission 전도(宣敎)하라 -- The Cultural Mandate 청지기적 삶을 살라	
복지실천 매체	-- κηρυγμα(kerugma: 말씀선포)	
복지실천 주체	-- εκκλησια(ekklesia: 교회) -- ἅγιος(hagios: 성도) -- Christian NGOs	
복지실천 방법	-- διακονια(diakonia: 나눔) -- κοινωνια(koinonia: 교제) -- διδαχη(didache: 가르침)	
복지실천 객체	대상(client)	-- εικων του Θεου(eikon tou theou,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community.
	현장(setting)	-- κοσμος(kosmos: 복지실천의 場인 세상)
복지실천 목표	-- β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하나님의 나라)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를 재구성하여 [그림2]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모형은 복지의 기원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라(대명령), 전도하라(위임명령), 청지기의 삶을 살라(문화명령)는 복지명령에 근거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 성도나 교회 등이 중심으로 실천의 주체가 되어, 비물질적인 성격의 섬김(디아코니아: diakonia), 물질적인 성격의 교제(코이노니아: koinonia)와 교육적인 가르침(디다케: didache)의 실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미-그러나 아직’(Already-But not yet)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주체인 교회나 성도 그리고 그 다른 기독교 공동체 등(노회나 총회, 연합회, 기독교NGOs 등을 생각할 수 있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개입은 실천의 현장에서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림2]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

IV. 결어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텍스트인 성경: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의 연구는 과학적 방법론에 앞서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복지의 실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사회복지에 있어서 일차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 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모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만 한다.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실천 기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the God)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은 항상 하나님의 마인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 방법으로는 물질에 중점을 둔 나눔(*διακονια*: diakonia)과 정신적 원조에 중점을 둔 교제(*κοινωνια*: koinonia) 그리고 교육에 중점을 둔 가르침(*διδαχη*: didache)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는 물질적 요소와 더불어 영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관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있고,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β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를 실천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기정 (2004).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복지모형 개발”. 『백석저널』 5. 43-62
- 강인한 (2003). “교회의 문화대응전략에 대한 역사적 모형적 고찰”. 『기독교신학저널』 4. 185-210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1). 41-85
- 고양곤 (2001).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 방향”. 『기독교와 사회복지』. 홍익재.
- 구춘서 (2005).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사회봉사”. 『신학과 사회』 19. 143-171.
- 김기원 (2005). “기독교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기독교사회연구』3. 53-80
- 김동춘 (2002).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디아코니아”. 『기독교신학저널』 3. 99-126
- 김상균 외 (2001).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
- 김성원 (2002). “인간복지를 향한 존재-목적론적 윤리론”. 『기독교와 인간복지』. 나사렛대학교출판사.
- 김성철 엮음 (2003). 『교회사회복지실천론』.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한국노인복지협의회.
- 김은수 (2001). “기독교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사상』 113. 163-182
- 김 인 (2006). “한국교회사회복지의 정책과제”. 『신학과 사회』 20(1). 147-148
- 김종환 (2003). “교회사회사업의 심리상담 치유사역으로서의 기독교 상담”.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편. 『교회사회사업편람』. 서울: 인간과복지.
- 김한옥 (2001). “기독교 사회봉사신학 정립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29. 161-188
- 박성호 (2005). 『한국의 종교와 사회복지』. 서울: 제이앤씨.
- 박종삼 (1997).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복지선교”. 『현대교회와 사회복지』.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종삼 (2002).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 박종삼 (2003).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방안”.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9-33.
- 박창용 (2002). “교회사회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서정운 (1992). “선교신학에서 본 사회봉사”.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 손봉호 (1990). “복음주의신학과 사회윤리”. 『성경과 신학』 8. 30-50.
- 손인웅 (2001). “교회 사회복지 참여의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회복지위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영락사회복지재단연구팀 (2005).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오성준 (1997). “다원화 시대의 사회선교와 성경적 주제”. 『현대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유의웅 (2001). “교회건물 개방의 성서적 근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만열 (1981).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사업사.

- 이삼열 엮음 (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 이상원 (2006). 『라인홀드 니버: 정의를 추구한 현실주의 윤리학자』. 서울: 살림.
- 이승구 (2003). 『인간복제, 그 위험한 도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재서 (2000). “에텐의 복지와 그 신학적 의미: 기독교사회 복지의 신학적 이해”. 『총신대논총』.19. 230-258.
- 이종우 (2000). “새 천년을 위한 한국의 교회사회사업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복지』 9. 255-258
- 임희모 (2001). “교회본질 회복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역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 263-285
- 정중훈 (2002).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개신교회의 정치윤리와 정치참여”. 『한국교회와 정치윤리』. 서울: SFC.
- 최무열 (1999).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 집.
- 최성균 (1996). “교회의 사회복지”. 『한국가족복지학』 1. 184-191.
- 홍정길. (1990). “크리스찬의 생활양식”. 『현대와 크리스찬의 윤리』. 서울: 엠마오.
- Bauman, Z. 이수영 역 (2010).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서울: 천지인.
- Cottrell, J. 노재관 역 (1994). 『현대사회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 II』. 서울: 솔로몬.
- Garland, Diana R.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이준우 역 (2001). 『교회사회사업』. 서울: 인간과복지.
- Hoekendijk, J. C. (1964).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1997). 『흠여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Luther, M. (1967). “Tabletalk.” Theodore G. Tappert (Ed. and trans.) *Luther's Works*. vol. 54. Philadelphia: Fortress.
- Mohler, Jr. R. A. (1996). *Here We Stand: a call form confessing evangelicals for a modern formation*. Boice J. M. et al. (Ed.) (1996). 김지찬 역 (1998). 『복음주의의 회복과 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71-98.
- Mouw, Richard J. (2004).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김동규 역 (2008).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서울: SFC.
- Plant, R. (1970). *Social and Moral Theory in Casework*. 남찬섭 역 (2002). 『사회사업의 사회이론과 도덕이론』. 서울: 인간과 복지.
- Sire, James W. (2004).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홍병룡 역 (2007). 『코끼리 이름 짓기』. 서울: IVP.
- Stott, John R. W. (1975).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혁 역 (1989). 『現代基督教 宣教』. 서울: 성광문화사.
- Stott, John R. W. (1980). *Message of Ephesians: God's New Society*. 박상훈 역 (1994).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서울: 아가페출판사.
- Stott, John R. W. (1999). *Evangelical Truth: a personal plea for unity*. 김현희 역 (2002). 『복음주의의 기본진리』. 서울: IVP.
- Van Til, H. (1972).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Baker.
- Wells, D. (2008). *The Courage to be Protestant*. 홍병룡 역 (2008). 『용기 있는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사.

ABSTRACT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of the Biblical Interpretation

Sang-Woo Kang(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Biblical worldview. 1) The Bible is the primary text o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becaus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Therefore, the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is based on Biblical worldview that should be followed from the Bible. If we should act according to the social welfare practi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Biblical worldview, we must adhere to the Bible more than to the logical-positivism methodology and we must treat social welfare based upon a faithful belief in the Bible.

2) The Bible tells us about components of the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a) God is the origin of social welfare practice. (b) The commands of social welfare practice are the Great Commandment('to love God and neighbor'), the Great Commission('to preach') and the Cultural Mandate('to live as stewards'). (c) The medium of social welfare practice is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κηρυγμα: kerygma). (d) The subjects of social welfare practice are saints, church, Christian NGOs. (e) The means of practice are Education(διδαχη: didache), fellowship(διακονια: diakonia), and Service(κοινωνια: koinonia). (f) The objects of practice are human being as an image of God and a local community. The world created by God is a practical setting.(κοσμος: kosmos) (g) And the goal is to make the Kingdom of God(β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

3) I suggest a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model, biblical worldview, diakonia, koinonia, didache